



2026년 서울연극창작센터 극장 수시대관 공고 심의 결과 안내



1. 공고 개요

- 공고부문 : 2026년 서울연극창작센터 극장 수시대관 공고
(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101, 서울씨어터 202)
- 접수기간 : 2026. 3. 4.(수) 10시 ~ 3. 17.(화) 17시
- 신청자격 :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
- 대관사용 기간 : 극장별 상이(사용기간 총 36일)

극장구분	대관가능 기간	사용기간
서울씨어터 101	4. 28.(화)~5. 3.(일) / 5. 19.(화)~31.(일) / 8. 4.(화)~9.(일)	24일
서울씨어터 202	4. 14.(화)~19.(일) / 8. 4.(화)~9.(일)	12일

- 접수건수/심의대상 건수 : 총 24건 / 총 24건

2. 심의 방법

- 심의절차

구분	세부내용	
중복 일정이 없을 경우	서울연극창작센터 및 극장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가	
중복 일정이 있을 경우	조정 가능	대관신청서에 기재된 기간 내 조정
	조정 불가	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종합 평가 후 우선순위 결정

- 대관검토 심의위원회

- 구성원칙: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 내규 제16조 3항에 의거하여 내·외부 총 3인 구성

연번	구분	이름	현직(약력)
1	내부	한지연	- 서울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장
2	외부	박장렬	- 연출가, 前 포항시립연극단 예술감독
3	내부	우상욱	- 서울연극창작센터장

- 심의기준

구분	배점	세부내용
적정성	4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 목적 및 극장별 방향성에 적합한가 - 지원 목적과 작품이 공연장별 특성 및 지향점에 부합하는가 • 해당 공연의 성격과 규모가 연극 장르 창작물로서 신청 공연장에서 상연하기에 적합한가
확장성	3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공연은 연극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- 연극 창작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는가 • 해당 공연이 연극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 문화 향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가
구체성	3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작 의도와 목적, 공연 계획 및 관객에 대한 계획이 명료하며 구체적인가 - 작품의 의도와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 - 제작진 및 구성원의 안전한 창작 환경을 지향하는가 - 공연의 전반적인 진행 및 관객 모객에 대한 일정과 계획이 세부적인가

3. 최종 심의결과: 총 5건 선정

극장	순번	단체(개인)명	공연명	대관 일정 (준비 및 공연)
서울씨어터 101	1	프로젝트소동	바라던 바다	04.28(화)~05.02(토) *조건부승인
	2	서울연극협회	제47회 서울연극제 개막식	05.03(일)~05.03(일) *조건부승인
	3	서울연극협회	에라, 모르겠다	05.19(화)~05.31(일)
	4	이형우	해부학자	08.04(화)~08.09(일)
서울씨어터 202	1	한국여성연극협회	제11회 여성연극제 기획공연 '이민선'	08.04(화)~08.09(일)

4. 심의 총평

서울연극창작센터는 연극인 창작 중심 공연장으로써 연극인들의 다양한 시도를 비롯하여 창작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. 이에 센터 내 공연장 방향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연극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단체 및 작품을 매칭하여 선정하도록 하였고, 공간과 사람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.

서울씨어터 101의 경우 블랙박스형 공연장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추구하는 작품에 비중을 더 두었습니다. 서울씨어터 202의 경우는 정통성을 추구하고 안정성을 토대로 연극계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연과 단체에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.

다만, 대관 신청에 있어서 작품을 내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공연 예술의 특성상 텍스트로만 작성하지 않고 이미지나 참고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게 지원서의 항목들이 세심하게 구성되고 신청서상에 구체화하여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원자들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확장되길 바랍니다. 아울러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변경을 하시게 된 지원자분들에게는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.

심의위원 박장렬, 이상욱, 한지연(가나다 순)

5. 향후일정: 결과발표 후 선정단체 대상 대관 승인 절차 개별 안내 예정. 끝.